

주간 총 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11월 중순 준공 예정 · 교회 남측 진입로와 후문 앞에 임시 주차장 마련

12월 25일 성탄절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될 98년도 메시아 연합 찬양(지휘 장원범 집사, 반주, 김윤경 목사)에는 교회의 모든 찬양대가 연합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따라서 각 찬양대에는 자신의 참가자를 신중히 주시기를 바라며, 참가 신청자 중 총 연합 찬양의 70% 이상의 출석자를 미리 연합 찬양을 드릴 수 있음을 타워 알려 드립니다. 연습을 위한 개회예배는 9월 20일(오늘) 저녁 6시 30분에 나사렛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연습 시간은 매주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창인 목사

# 유다의 구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사야 28:14-22)

“망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세반석인 주님의 품 안에서 김숙히 들어가 안기면 천국이요 급절할 일이 없습니다.

급절한 데 이르지 않는 방법이 한 가지 있으니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입니다.

살아도 급절한 데 이르지 않고 세상을 떠나도 급절한 데 이르지 않게 됩니다.”

## 1. 멸망 앞에서 호언장담하는 유다

죄악으로 가득찬 유다에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전쟁에 대비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믿음도 준비하지 못했고 자기들이 먹고 입고 살 만한 생활비도 준비하지 못했던만큼 열매없다고 호언장담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심하기가 짝이 없고 주의 종이 볼 때에는 멸망의 직전에 섰던 자들의 행동은 오만분산하였습니

그러나 기가 막힙니다. 자기네는 실력이 없습니다. 거짓으로 자기 백성을 속이더니 거짓으로 다른 나라 속여서 동맹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믿음이 없고 사람 앞에는 신용이 없습니다. 개인은 죄 위에 죄를 쌓고 또 쌓아 놓습니다. 앗수르 군대가 남으로 점점 쳐내려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 3. 유다가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가 음부와 약속을 하고,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았느냐? 하나님께서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심판의 수를 삼아 계이 보시겠다고 하신다. 건축가들이 추를 늘어놓고 재는 것은 들어간 대는 둔우고 나온 대는 깨서 반듯하게 하려는 것인데 하나님은 공평의 줄을 띄워 놓고 심판하신다. 이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짓으로 꾸미고 임시처방만 하면 하나님이 계속하여 속으실 것 같고 너희가 살 것 같으냐?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의 하나님은 유다가 급절한 데 이르지도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몬에 두어 기조를 삼았노니 곧 시몬은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조돌이요 그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다”(16절)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으로 한 돌을 시몬에 주실 것이니 이제라도 만세반석인 신 하나님께 돌아 오면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1) 급절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급절’이란 급하게 절망에 이르는 말입니다. 유다가 마지막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백성들은 유란하고 방랑하고 권세 지도자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권세자들의 앞잡이 노릇만 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의 동가죽을 벗기며 취취해 먹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장면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 오면 급절한 데 이르지 아니하리라”며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을 밟고도 저주하였습니

대로 산 돌이요 모퉁이돌이신 예수님만 믿으면 급절한 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임금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면 급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지만 주님이 돌보시면 급절한 데 이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풍랑을 만나 벌벌 떨며 아우성치는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왔다” 하시며 거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원수의 세력을 막아 주시면 급절한 데 이르지 않습니다.

### (2) 급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원수가 따라 오는데 피난갈 길이 끊어지면 급절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급절하게 됩니다. 절망이 위독해지면 급절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인간이 급절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예수님은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이 세상의 문명국가보다 더 훌륭한 시설을 갖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길 결코 급절한 데 이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 (3) 급절하는 재앙은 언제 유행합니까

첫째로, 거짓 외교와 정치로 임시처방을 속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백성을 속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주의 종들의 권위를 마수레에 매어 제왕이 유행합니다. “너희의 사모됨이 더불어 세운 연약이 꾀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18절)

둘째로, 야심마다 유행하고 난에도 유행하고 밤에도 유행한다고 하였습니

### (4) 급절하는 재앙이 유행할 때의 형편이 어떠한가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피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할 잔으로 하사나”(20절)

날씨가 차서 몸이 얼어 오는데 이불이 너무 좁아서 몸을 가릴 수 없습니

불이 좁은데도 몸을 가리우겠다고 하면 서 스스로 속이는 자여, 고생과 멸망이 찾아 오고 있으니 이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 오면 급절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 4. 결 론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책임을 다하고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도 교만하면 넘어지는데 하물며 준비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세웠는가는 건리를 배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준비하고도 조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죄값으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죄를 회개해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애급과 친하기 위하여 죄를 더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 하는 마당에 인간의 의뢰로 살 수 있었습니까?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내시는데 죄를 회개할 마음은 가지지 않고 거짓말 외교로 애급과 동맹만 하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심하니 이것이 될 말입니다. 심판을 면하려 한 죄의 회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로, 망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호스기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 왔습니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백성이 거짓으로 피난처를 삼고 죽음과 계약을 맺었고 호언장담만하고 안심하고 범죄하는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마리아는 10년이 못되어 멸망하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한 예루살렘은 그 후 100년을 무사히 지나는 복을 받았습니





김성광 목사

## 세레 요한의 삶

(마태복음 3:4)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온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레 요한과 같을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마음의 소망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반영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 위대한 사람 세레 요한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여기에 참으로 기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성경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레 요한의 독특한 생활방식을 아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일에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적어도 세레 요한이 뭘이 있는 옷매무새에 신경을 쓰거나 먹을 것을 가려먹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풍요롭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열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세레 요한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곳들에 기록된 세레 요한과 그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묵상하게 되면 본론 말씀이 담겼다는 신비한 메시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님의 뜻을 본받히고 마르도록 빛을 던져 줄 수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구약에 따르면 세레 요한의 의복은 선지자 엘리야의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왕하 1:8). 또한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은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것으로 그가 지내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레 11:22, 신 32:13, 삼상 14:26). 그는 전 생애를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것은 말씀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큰 이가 있나니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마 11:11)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경 경범의 사건으로 인해 세레 요한의 위대성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부여된 탁월성은 우리의 죄를 풀기에 충분합니다. 그의 거침은 의복과 음식은 평범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레 요한의 생활 방식을 되짚어 보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광야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세레 요한의 출생 이야기는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세레 요한이 나이 많은 부모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는 사실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한동안 불임이 되기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세레 요한이 특별한 소명을 받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야기 등

을 볼 수 있습니다. 세레 요한은 신약의 새시대를 밝히는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침령을 평탄케 하라”(마 3:3). 세레 요한은 범상치 않게 태어났으나 결코 세상의 명예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뜻과 길만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사회적이지 못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엇을 입을가 무엇을 먹을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보십니까? 그러나 세레 요한은 세상의 법과 관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뜻만을 따르며 그분과 교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모든 것이 그에게 흠족했던 것입니다.

### 세레 요한의 광야 영성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가 삼심년의 은둔 생활을 마치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사람들이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요단강가에 모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은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한 번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간이든 영언이든 익히어 아 할 기본적인 예의 범절도 익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의 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는 그대로 순종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을 등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요한의 광야 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은 석청과 메뚜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음식을 장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인간적인 욕망이나 이기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소망으로 쉽게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아무렇게나 기른 그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매우 반본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배수기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것보다는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그의 옷은

오래 전 선지자 엘리야가 입었던 것과 같았으며 그가 먹는 음식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즐겨 먹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는 없습니다.

### 회개를 요구하는 소리

그는 광야에서 참선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1:23).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세레 요한은 그 ‘말씀’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광야의 적막을 깨고 외칩니다. 그는 안락한 도시 생활과 쓸모 없는 세상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외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잘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하는 곳의 토양에서 공급해 주는 것을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그의 음식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이리하고 방종하며 무책임하게 달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마 3:7).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누가 구원과 진노의 권능을 알았습니다. “손에 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마 3:12).

### 재림을 준비하는 영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 참된 것보다 하찮은 것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 보십시오. “노아기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며 흥수나 내지 저희를 다 멸하였도다 또 뜻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뜻이 소동에서 나기던 날에 하느님이 불과 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창 17:27-29).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레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까지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

자의 임박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기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며 흥수나 내지 저희를 다 멸하였도다 또 뜻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뜻이 소동에서 나기던 날에 하느님이 불과 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창 17:27-29).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리가 준비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레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실 길까지 예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겠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

### 복음의 말씀에 초점을 둔 삶

세레 요한의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마 3:2). 사랑하는 중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복음의 말씀 위에 삶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일으킨 절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레 요한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으므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기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전념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온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레 요한과 같을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마음의 소망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레 요한의 생애는 서로 달랐지만 그분들은 모두 생상으로부터 환생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반영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깊은 신념과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레 요한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를 나타내며 사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



## 선교

## 선교부서탐방1

## 선교의 허리-청년1부 선교팀



“새벽 4시 25분” - 20명이 조금 못되는 인원이 모여 밤 1시부터 열린 토론회를 하다가 언뜻 본 시각이었다. 청년1부 선교팀은 '98 청년1부 단기 선교 평가 및 개선 방안과 후속 사업'을 주제로 한자리에서 모여 밤샘 토론회를 했다.

청년1부 선교팀의 두 본 선배님과 선교팀원, 단기선교, 선교한국 참석자들이 모였다. 넓게는 현재의 선교정책에 관한 것부터 '98 단기선교에 대한 평가, 청년들의 단기선교의 가치 등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 모두가 더욱 바람직한 선교훈련 방향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이었고 서로의 의견을 참고하는 데 열심이었다. 후속 사업

을 위한 것으로 크게 두 가지 제안이 나왔다. 첫째는 단기 선교에서 흥고 온 마음을 지속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정기

선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가기길 기대

적으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에 참석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청년들의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단기선교 훈련의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1부 선교팀은 93년 국내 전도로 시작되었다. 96년부터 일본을 시작으로

해의 단기선교가 시작되어 97, 98년 3년 동안 해의 단기 선교가 진행되고 있다. 그대부터 인도, 터키, 일본 단기선교들이 지금까지 모임을 갖고 있다.

청년1부의 선교팀은 장승훈, 김인철 선배님과 선교팀장, 교문(출입 선배)과 선교사부, 해의 단기선교부, 언어훈련부, 문서부, 정보통신부 등 5개의 부로 조직 되어 있다. 선교사부는 청년1부 담당 선배님과 청년, 대학생 선교사 훈련생들을 위한 기도와 재정으로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알리는 일을 담당한다. 해의 단기선교부는 해의 단기선교를 통해

보를 받고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팀원이 새움이 (세제 선교를 꿈꾸는 젊은이)이라는 기도 모임에 참석한다. 새움이는 대학, 청년들이 함께 모여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임으로 올해로 4년이 되었다. 선교팀은 매주일 5부에 배후 청년1부 '선교방'에서 정기 모임을 갖는다. 정식으로 청년1부 해의 선교팀의 나이는 3살이다.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번 평가회에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청년1부 그리고 총현교회가 나아가야 할 선교 방향을 놓고 열린 토론회와 고민을 했다. 토론회를 하며 이것이 토론회고, 그 지치 않고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과 총현 청년의 미래를 인도하시리라는 소망을 바라보게 되었다.

청년1부 선교팀은 언제나 선교사님과 선교사 지원자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 선교부서탐방2

총현대학부  
어부와 목동

총현교회 젊은이들의 영적 성숙과 부흥을 위한 태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말로만의 부흥이 아닌 실제적인 순종으로서의 부흥을 꿈꾸는 '어부와 목동'은 기도와 말씀, 전도(선교)와 교제를 그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된 대학부의 소모임이다. 각자가 속한

순종 통해 부흥 꿈꾸는  
하나님의 예쁜 스피커

학구나 직장에서의 부족한 복음 증거 모습과 새로 나온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 부족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시작된 '어부와 목동'은 실제 전도를 위한 훈련과 개인의 경건생활,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모임을 그 첫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온 새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공동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중보하고 도와 주는 '새신자 수용체계 확립'을 둘째 목표로 하고 있다.

몇 주간의 지속적인 모임과 기도, 전

도훈련을 가졌던 '어부와 목동'은 지난 토요일(12일) 건국대학교에서 첫 노방 전도를 시작했다. 2인 1조로, 1시간에 정으로 개인전도를 시작했던 지체들은 모임시간이 지나는데 졸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다. 전도를 마친 후 나눔의 시간에 참석했던 많은 지체들의 고백 속에서 전도에 대해 새롭게 도전 받을 모습과 이번 전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느낄 수 있었다.

아직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한 캠퍼스 전도였지만 '어부와 목동' 지체들은 주님의 준비하심과 영혼 사랑하심을 깊게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예쁜 스피커를 자정하며, 각자의 캠퍼스와 대학부에서 이번 노방 전도를 통해 느꼈던 전도의 열정을 다스림 불붙이기를 다짐하며 돌아간 '어부와 목동'을 위해 총현 대학 청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한다.

총현 선교의 문!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로 열 수 있습니다

지금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에 관심 있는 여러 성도들과 신학생, 그리고 일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선교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제까지는 많은 성도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관심 있는 성도들의 선교위원회를 통한 자료 열람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의 제공은 총현교회 선교의 문을 더욱 크게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 총현교회 안에 있는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진 지체들의 연합은 선교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하다.

하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알고 있는 선교에 관한 자료를 총현선교위원회로 보내면 그 자료들은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여러 선교에 관심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도 그 필요에 알맞게 도움을 줄 것이다.

선교위원회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자료 열람은 선교관 4층에 있는 선교위원회로 오면 되고 자료 제공은 직접 전달하거나 E-Mail을 이용하면 된다.

선교위원회 E-Mail: gwwj@unitel.co.kr

E-Mail로 온 선교지 소식 - 수리남 안석철 선교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그 동안도 수리남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바니 사론에서의 사역을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번번히 거절하던 바니 사론을 매의 교인들과 방문하여 추장을 만났습니다. 완강하게 거절하던 추장에게서 뜻밖에도 교회를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은 물론 국민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알렉산더의 가정에서 시작하려 했던 우리의 계획을 들어 주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바니 사론에서 가짜로 방문하며 성경책을 나눠 주면서 전도를 하고 있으며 9월 20일 주일에 교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도 영적인 싸움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믿고 기도로 주께서 처음 전도를 신장했을 때 만났던 추장이 이제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려는 수도(파라마리보)에서 국제공항을 거쳐 마타까지가 65-70Km 가 되며, 마타에서 바니 사론은 약 15km로 약 15분 정도 더 가야 합니다. 그런데 15분 정도의 가마는 거리지만 파라마리가 있고 없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타에는 파라마리가 없지만 바니 사론에는 파라마리가 있어 열차 20여명 가까이 파라마리에 갈라 임시 보건소가 설치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족속도 카리비(Calibi)라는 족속으로 강에서 대부분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인디언들이며.

앞으로 바니 사론에서 30분 정도 들어가면 만나는 비기 포이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9월 22일-24일 3일간 성경학교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여 가는 인디언들의 영적 삶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어부와 목동'의 개인전도



## 전국일꾼키우기

##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워가겠습니다”

- 소식 전역장학생들의 감사 소감 -



△ 지난 주 찬양예배시 소식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모습.

## 부르신 자는 인도하신다

김 범 진(대학부, 국민대 자동차공학부)



나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사람, 거인 끌이도를 넘어뜨리는 믿음의 능력, 이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최인된 나를 ‘너는 내 것이다’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친밀하게 인도하신다니... 지난 8월 초,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퍼부을 때 낮은 지대에 있던 우리 집도 순식간 누런 흙탕물 바다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집을 등지고 근처 교회 기도원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집과 생필품이 나를 지켜 준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를 꼭 뵈어 뵈는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서 진행된 복음전하는 산행, 금요기도회, 월야기도회, 장학생 시합, 연담 등의 모든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 중 8월에 있었던 장학생수련회, 그 중에서도 삼삼오오 모여 비전 확인의 시간을 가졌던 내용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다양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쓰실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향해 ‘가라’고 하셨습니다. 정교도들에게 있어서 신가나안은 미국이라는 땅이었습니

## 내 안에 예수님 형상만이

정 은 주(대학부, 이화여대 영문학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라”(갈 2:20)  
함께해요!

이 말씀이 저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총련소식장학생 후보로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까지의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쓰임받는 천국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빌 1:21말씀을 품고서

고 범 석(고등부전양대 지휘, 한양대학원 음악학과)



지난 5개월간 받은 신앙훈련 중 매주 금요집회 후 가진 기도회는 제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질문하고 기도 속에서 대답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역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깊은 깨달음을 주신 원로목사님의 경순하심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함’을 확증해 주신 위임목사님의 권면, 그리고 물결과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해 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소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발원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직 하나님을  
경의하는 자가 되기를

오 용 진(대학부, 건국대 영문학부)



떨리는 마음으로 위임목사님 앞에 앉아 면담할 때, 전절하에 대해 주시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자 가르치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식장학회를 통해 교회의 소원을 받고 성도님들의 기도 지원을 받는 큰 특권을 얻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 은혜를 입던 중 특히 전도서를 통해 오직 하나님을 경의하는 것만이 참 의미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바울 선생처럼 매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도록 힘쓰겠습니다.

비오기 바랬던 공동체 훈련,  
산행(山行)

최 미 영(대학부, 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학과)



전역장학생은커녕 일반장학생도 되기를 어려운 것 같은 마음에 휴학을 결정지를 즈음, 전역장학생 후보 명단에 올랐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담스러웠다. 또 기쁘다. 내 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사근사근한 것이 싫었던 여러 복잡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같듯이 되기도 했다. 그 같들은 훈련이 시작되어 등산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이기도 계속되었다. 한 번만이라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곤 생각에 마음을 고쳐먹기도 했지만, 여전히 내지 못하는 마음에 그 날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정말 그 날이 되자 햇빛이 쨍쨍 내리쬘었다. 무정하신 하나님! 하지만 바로 그날, 난 참으로 신난 경험을 했다. 한 장로님의 정성으로 준비된 스무개의 봉지에 담긴, 잘 들어진 오이와 초콜릿들. 투명하지 못한 산행도 반도 넘는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날 산행과 만도를 무사히 마치고서 난 고정관념을 하나 깨뜨렸다. ‘무엇’보다도 ‘어떻게’에 실린 부분을 깨달았다. 그리고 너무나 만족스런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다. 전역장학생 명단에 들었다는 연락을 받고 물들 물들 모르고 또 다시 부담을 가졌다. 그러나 이제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잠잠히 얹드리니 나를 새롭게 빛으시는 은총에 나를 맡겨드리려 한다.

## 나의 나된 것은하나님의 은혜

권 영 일(청년1부, 명지대학원 컴퓨터공학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빌 2:13)는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한 소식장학생, 훈련 일정 속에서 학교 행사와 선교수련회가 중복되어 심히 갈등하다가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수련회를 택한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선교수련회를 통해서 는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로 도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도전은 소위라 할 단기간훈련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 속에서 묵묵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들, 내 모든 작은 경험과 연약함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세하신 손길로 빛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나의 생의 전부이신 그리스도

손 에 스 디(대학부, 서울여대 사회사업학과)



저는 지금 국제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영국의 한 특수학교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가서 보내주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느끼습니다. 소식장학생 훈련을 위해 매주 금요집회 후 가진 기도시간을 통해 저는 진정한 영혼 사랑의 마음과 복음 증거의 열망을 가득 품게 되었습니다. 불행 다투고 연약한 자를 연단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산과 공동체 훈련, 지난 훈련 등을 통해서 제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면서 제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들을 수 있었습니.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언제나 신뢰함으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생의 전부이십니다.

## 나의 신(新)가나안을 향하여

이 성 태(청년1부, 서울여대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저는 그날의 약속과 할 일들을 수첩에 꼼꼼히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서 장학생 생활에



# 주께서 그 자녀를 아끼며 다듬으시듯

농어촌 전도활동을 다녀와서

황 종 헌(린사, 6구구)

전 날까지 비가 내려 적막은 우리를 했었지만, 전도활동을 위해 날씨가 지 주장하시어 그동안 우리 나라 곳곳을 강타했던 폭우를 맑았기 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새삼 감사를 드렸다. 우리들은 6구구 이종대 목사님을 선두로 하여 강원도로 출발했다. 우리가 전도 활동지로 삼은 곳은 강원도 중에서도 산 높고 물 맑고 공기 좋은 두메 산골 정선의 신원리였다. 신원교회에서 여장을 풀었다. 20명 가량으로 이루어진 우리 전도팀은 각기 축도 전도, 침술, 이·미용, 식사봉사 등으로 각자의 소질과 봉사정신을 살려 전도하고자 하였다.

축도 노방 전도팀은 각기 조를 만들어 이기가호호를 나뉘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돌로 일하기 위해 나간 후였기 때문에 들로 옮겨야만 했다. 고추를 따는 일손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였다.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들이 바쁜 생업과 함께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의료 봉사팀을 찾아오는 이들 가운데에는 허리 또는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다. 특히 한 여성은 16세때 홍역을 앓았는데 그 후유증으로 전신에 크고 작은 혹이 있었으나 치료비가 없어서 38세가 되는 지금까지 치료를 못받고 있었다. 침을 놓을 자리

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시간이 되었다.

이·미용 봉사팀은 둘째날에 도착하였는데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주민들에게 복음송을 들려주는 가운데 주민이 그 자녀를 아끼며 다듬는 것같이 그



경로 잔치도 베풀었다. 이를 위해 식사 봉사팀은 구

슬땀을 흘리며 90여명분의 삼계탕을 준비하여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둘째날을 마치며 이틀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이 작은 마을에서도 풍성하게 역사하시어 바쁜 생활에 지친 주민들이 새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일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 뜨거운 감격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짧은 시간을 통해서나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되는 기쁨이 되었음을 감사드렸다.

마지막 날 정전을 떠나면서 우리는 신원교회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여 큰 결실이 맺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3일간의 짧은 여정을 마쳤다.

## 작은 봉사가 험지 주민들의 마음문 여는 열쇠 영혼과 육신의 치유 현장 보며 하나님께 영광

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매우 심각하였으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이종대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치료를 시작하였고 완치될 때까지 무상으로 치료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그 한자본 또한 감사함으로 이를 받아 들여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뿐 아니라 몸도 치유하시는 현장을 바라보며 다함

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다. 전도팀의 봉사는 이·미용팀이 파마 및 커트 등의 봉사를 할 때 주민들이 만족해 하는 것을 보며 이러한 봉사가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고, 이런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또한 마을의 여러 어른들을 모시고

## 나의 작은 진실한 고백

박 우 정(중동3부교사)

나도 무언가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기쁜 마음으로 중동3부의 문을 두드린 지 벌써 5년, 그 짧은 시간은 이 지난 이 시절에서 내가 얻은 결론은 나는 이 아이들이 정말 싫다는 것이다. 도대체가 이 아이들은 대책이 서질 않는다. 지각을 하거나 성경, 찬송도 없이 빈 손으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 그 숫자를 세기가 민망할 정도로 예배시간에 소질을 잃고 있는 것이다. 경솔 영어대는 녀석, 심지어는 화장을 하고 있는 녀석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런 아이들

기운 빠지고 황당하기까지하여 교사를 계속해야 하나 하는 회의를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얻어진 나의 최종 결론은 이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바라보실 때에는 어떠한가? 아마도 이 아이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책이 서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끝없는 실망과 한숨을 계속할 것이 분명하다. 그야말로 꼴도 보기 싫을 것이 하

##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겨울수련회 제1회 전국찬양대 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에 참가하고서

윤 영 미(림사, 원천교회)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글을 너무 늦게 보내 드린 점을 죄송하게 여깁니다. 저는 지난 8월에 '제1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에 참석한 88번 윤영미입니다.

수련회를 통하여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찬원교회 모든 분들과 찬양위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학년에 경기도 평명사에서 사용자 은행동에 아주 아담한 교회를 건축하게 된 '원천교회'입니다. 조곤한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그리 많지 않은 성도로 모이지만 모두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일에 열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가대는 재적이 20명으로 거의 대부분 음악에 관한 충분한 소양은 없지만 나름대로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부처였으나 올해초 저희가 집사님의 사정으로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너무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휘에 관한 기본 지식과 실기는 제게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수련회에 다녀온 뒤 지휘하는 모습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성관 목사님의 메시지가 저의 가슴을 울렸으며 강구구 찬양감독님의 해법은 미소가 저까지 미소짓게 하였고 강의에 임하시는 모든 강사님의 열정적인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전행을 도우시는 분들도 아주 친절하고 애매 준비하신 식사는 또 어찌 그리도 맛있었는지요. 저희 목사님께서는도 찬원교회와 장로 교회로 참 훌륭한 일을 하신 것이라며 같이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찬원교회 모든 분들과 찬양위원회에 깊이 감사합니다. 겨울수련회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어 가슴이 떨립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꼭 다시 불러 주시는 거죠? (사실 수련회비가 부담되고 이렇게 많은 줄은 곳이었어요 되잖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역을 위하여는 찬원교회와 내심 진심으로 기도드리며 이번 감사의 글을 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원천교회 윤영미 전사 올림



## 아이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대책없는 자신 발견 "아이들을 한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에게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면 한심하고 아득하기만 했다.

솔직히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때때로 "저 녀석은 교회에 좀 안 나와 왔으면 좋겠어, 다른 아이들처럼 물결에 띄워"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그들의 마음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로서는 대단히 건넌다기 힘들 1시간 정도의 예배시간, 형식적이고 지루하게 반복되는 분만공부시간, 거기에 더 참기 힘든 것은 아마도 자신들의 제격에는 안맞기조차 불편한 책걸상 등, 편안한 것을 우선하는 요즘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 훌룩한 것이 없으리라. 교과서도 바라볼 때에 간혹 안팎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이 아이들은 정말 대책이 서질 않는다.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정말

실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내 곁에 있지 말라"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 우리는 도저히 감히 믿지 못할 것이나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아이들을 정죄하고 미워할 수 있겠는가!

이제 또 다시 이들의과 지루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때론 미끼도 싸우고 싶은 일들이 끊임없이 나를 감회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까지나 계속 될 것이며 그들을 향한 나의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을 한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들과 제게서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 주세요 하고."



## 지체들 소식

영어부  
예쁜 솜씨 아름다운 가을

아침 저녁 시원함이 가을을 알려 준다. 영어부도 여름에 푸른 모습을 지우고 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는 환경정리를 했다. 감나무가 가을이 탐스럽게 열리고 감자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길가에는 예쁜 코스모스가 함께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현교회 아기들이 있는, 생가으로도 편안 한 모습으로 단장했다. 숲씨가 가을에는 몇몇 교사들이 많은 시간을 같이 하여 만든 작품이다. 그분들이 수고하였기에 영어부실이 더욱 아름다웠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아름다운 비행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를 아이와 보았습니다. 기러기가 앞에서 깨어 날 때 처음 본 소녀를 엄마라 생각하고 언제나 따라다니지요. 그런 걸 각인호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면이 있어 어릴 때 받은 교육이 평생을 가지요. 세상이 점점 어지러워져서 제대로 교양시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유아부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신앙교육을 시켜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유아부는 주일 오전 8시 50분과 10시 50분 두 번 예배드립니다. (임미순 통신원)

유년부  
어리고 작은 봉사 유년부 찬양대

아침 11시 2부예배 시작 전 40분, 예배 끝난 후 40분, 할렐루야! 예쁜 일 벌려 찬양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합니다. 울려 퍼지듯 구슬땀 흘리며 연습하던 모습,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 그리고 선생님의 얹힌 통제 없이도 열심히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 2부찬양대를 지도하는 음악과장님은 3과 1학년 15반 유년부 선생님이오 어린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20년 가까이 어린이들만 맡아오셨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선곡된 찬송을 돌릴 형식이 아 후렴구 반복, 마디별 부분 중창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지휘자는 안전회 선생님이오 벨앨찬양대 솔로리스트 및 벨앨중창단에서 활동 중입니다. 피아노로 힘있게 때로는 부드럽게 호흡을 맞추는 반주자는 김지연 선생님인데 대학부 조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리고 작은 봉사자를 드리는 유년부 2부찬양대는 사랑의 수로로 하나 되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주 통신원)

## 중등1부

## 오늘 제2회 학부형 초청예배

오늘 중등 2부에서는 가을을 맞으며 제2회 학부형 초청예배를 가졌습니다. 지난 겨울 학부형 초청 기도회에는 122명의 학부형이 참석하시어 교회학교에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대에 참석하신 학부형님들께서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표현 하시어 이번에도 다시 학부형 초청 예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림이 그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현대중학교 교감으로 봉직하고

계신 부장 김단웅 장로님의 특강도 곁들이어 신앙교육의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학부형님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송신아 통신원)

## 중등2부

## 김우준 선생님, 결혼 축하드려요

지난 주일 중등2부에서는 조금 색다른 소개가 있었다. 그 소개는 그동안 중등2부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여러 행사들이 세 시간에 바르고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말없이 수고하셨던 김우준 선생님의 결혼을 알리는 것이었다. 우리의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실천하였던 선생님이 새로 부처요 귀여운 새로운 가정을 위해 우리 모두 찬양과 박수로 축하해드렸다.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우리 친구들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찬양 속에 출발한 이들을 소망하면서 김우준 선생님과 새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사를 늘 함께 하리라 믿는다. (나심애 통신원)

## 청년1부

## 명동찬양선교팀

사역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광고도 인상 깊은 이들을 꿈꾼다. 또한 이 사역에 참여한 지체를 찾고 있다. 보컬 - 여 3명, 2명, 키보드 - 2명, 바이올린 1명, 기타 - 1명, 문의 - 정영수 (462-5911, 015-7703-5788)

## 사람방

## 벌써 10살이 되었어요

지난 9월 6일은 우리 교회 사랑방가 태어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사랑방에서는 특별예배와 교회 본당 앞에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특별예배에서는 지도 목사

님께서 "사랑방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예배를 드린 후 우리들은 12:30-13:00까지 뜨거운 햇살과 싸우면서 본당 앞에서 찬양과 율동 그리고 전도지를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방도 소개했다. (정영애 통신원)

## 1교구

## 성숙한 신앙인의 삶 다룬 영성훈련

30대 이상의 낮기운이 열일 계속되는 가운데 영성훈련이 재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도원에 도착하여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간구하는 찬송으로 신앙을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교구 식구들은 교구장님과 여섯 분의 지역장님도 참석하시어 더욱 하나님은 가운데 태복을 16장 21-24절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합당한 은혜의 기회를 누리고 독생자를 죽음을 내어 주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을 재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5대 목표의 의미와 의미를 되새기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된 믿음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다짐했다. 지역모임, 전체 기도회, 안수기도, 개인기도의 시간을 갖고 집중한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면서 장막이 있는 세상 속으로 돌아왔다. (임동태 통신원)

## 중현교회

## 노래교실 수강생 모집

목사관에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래교실을 연다. 개강일은 10월 12일이고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강사는 신기철 선생(음악학원장)이다. 수강료는 매달 만5천원이며, 선착순 20명 마감이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

## 탐방 - 장년3부

##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뜨거운 60대

♫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밤의 빛이고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 찬송가 238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을 항상 부르며 말씀 배우기를 즐기하는 장년3부(부장 송기홍 장로, 지도장년인 목사). 인성을 끌려가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장년3부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서로를 섬기려는 신앙의 연합함을 가진 것이다. 이것을 항상 쌓아 가는 주일 집회 시간은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이고 강소는 교육관 307호실이다. 장년3부의 회원들은 모든 일에 순종하길 잘한다. 그것은 항상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며 생활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집회 시간에 이들이 말씀을 듣는 내용은 총회 교육부에서 발행한 공과와 내용이다. 매주일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모습에서는 말씀이 사모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향한 열정뿐만 아니라 교회회를 위한 기도 또한 빠짐이 없다.

그리고 회계를 중요시한다고 한다. 자칫 잘못된 회계의 문제가 부추키기 쉬운데 그걸 항상 인식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것 같았다. 성도의 교제는 거추장스러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며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잘 알고 실천하는 것 같았다. 또한 전교의 한 뜻을 하고 있는 반은 믿음, 소망, 사랑, 겸손과 이 네 개의 파에 여성 회원들만, 그리고 중생과에 남성 회원들의 반 등이다. 이 각반은 교구별로 짜여져 있어서 서로의 친교가 잘 이루어지도록 했다. 장년3부는 새해가 시작되면 회원들과 교사들과 서로 떡을 떼며 반별 친교를 한다. 그리고 성경 암송 대회와 찬송가 부르기 대회를 열어 말씀과 찬양을 더욱더 가까이 하려 한다. 여명이 되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와 순종의 생활

수련회하는 것인데 올해는 교회에서 1박 2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김창진 원로목사와 장년인 목사님 강의를 하였다. 모두가 새벽기도회에도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반별 찬양대회를 통해 반별 친교에



도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여러 다른 강사들을 초빙하여 봄과 가을에 특강 시간을 갖는다.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로 강의하는데 각각에는 한 권사의 신앙 간증을 들었다. 대개 가정과 관련된 강의는 교부 갈등의 문제나 자녀와의 관계된 것들이다. 이번 가을에는 12월 27일에 이종대 목사를 강사로 하여 '믿음과 감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되짚어 볼 계획 이다.

"나의 말씀은 내 밤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시 119:105) 이 말씀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장년3부 회원들의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을 보았다. 그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들을 수 있도록이라.

장년3부 회원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이 아름다운을 잘 가꾸어 신앙의 후배들도 이 아름다운을 가지며 자랄 수 있길 기도한다. (글/부주영 기자, 사진/이은구 기자)



교 회 소 식

● 알 린

1. 구제현교 안내 / 27일(다을 주일) I, II, III, IV, V부예배 시 드립니다.
2. 교회와 정성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장년3부 특강 / 27일(다을 주일) 12:30-13:30 교육관 307에서 있습니다.  
- 주제: 믿음과 감사 - 강사: 이종대 목사
3. 장년2부 특강 / 10월 18일(주일) 12:30 교육관 314에서 있습니다.  
- 주제: 50대 성도의 시대적 사명 - 강사: 김재철 목사
4. 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찬양예배 기독교 TV 방영 안내 / 21일(월) 09:30-10:30, 22일(화) 19:30-20:30, 24일(목) 21:20-22:20에 방영합니다.

● 모 인

1. 장로 회례세례기도회 / 22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의 회례세례기도회 및 성령강루부 / 21일(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갈릴리
4. 찬양위원회 월례회 / 오는 찬양예배 후, 찬양위원회실
5. 교육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30, 당회실
6. 신학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00, 사무국
7. 설립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24일(목) 새벽기도 후, 설립인전도회실
8. 총원들산 이시회 / 오는 15:00, 사무국
9. 권사회 제3회 월례회 / 23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 남녀전도회

1. 바. 월 4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2호
2. 바. 월 10 / 오는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 바. 월 11 / 오는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4. 바. 월 12 / 27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육관 212호
5. 바. 월 13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0호
6. 바. 월 16 / 오는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7. 바. 월 17 / 오는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8. 베드로 1 / 22일(화) 19:30, 안락부(부부반)
9. 베드로 7 / 26일(토) 16:00, 고대 제1관공원
10. 베드로 9 / 24일(목) 19:30, 성모성도
11. 베드로11 / 오는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12. 베드로12 / 오는 15:00, 교육관 409호
13. 오. 한 4 / 26일(토) 18:00, 송송성 집사대(592-2315)
14. 오. 한 6 / 오는 12:00-13:30, 갈릴리
15. 오. 한 7 / 26일(토) 16:00, 고대 제1관공원
16. 오. 한 13 / 오는 14:30, 갈릴리
17. 한 14 / 3 / 오는 교구모임 후, 사랑부실
18. 예스다 1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407호
19. 예스다 2 / 오는 교구모임 후, 사랑부실
20. 예스다 3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4호
21. 예스다 5 / 오는 교구모임 후, 복자관 지하2층
22. 예스다 6 / 오는 교구모임 후, 복자관 지하1층
23. 예스다 7 / 오는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4. 예스다 9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414호
25. 예스다10 / 오는 교구모임 후, 본당
26. 예스다12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212호
27. 예스다13 / 오는 교구모임 후, 배다부실
28. 예스다15 / 오는 교구모임 후, 배다부실
29. 예스다16 / 오는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0. 예스다17 / 24일(목) 19:30, 본당 중앙공원
31. 루디아 2 / 21일(월) 11:00, 갈릴리
32. 루디아 5 / 22일(화) 10:30, 세가복부 교사실
33. 루디아 6 / 22일(화) 11:00, 갈릴리
34. 루디아 7 / 22일(화) 11:00, 사랑부실
35. 루디아 8 / 오는 15:00, 교육관 305호
36. 루디아10 / 22일(화) 11:00, 박유미 집사(906-5640)
37. 루디아12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404호
38. 루디아16 / 오는 교구모임 후, 본당 지하 108호
39. 루디아17 / 23일(수) 13:00, 갈릴리
40. 마리아 1 / 22일(화) 10:30, 사랑부실
41. 마리아 5 / 22일(화) 10:30, 신교장정부실
42. 마리아 6 / 22일(화) 10:30, 영아부실
43. 마리아 7 / 22일(화) 10:30, 유아부실
44. 마리아 9 / 22일(화) 11:00, 한영숙 집사대
45. 마리아12 / 오는 3부예배 후, 갈릴리
46. 마리아13 / 오는 3부예배 후, 갈릴리

● 결 혼

1. 정명호군(장정길 안수집사, 이영자 집사의 아들, 제12교구)과 김은숙(강동성 성도의 딸, 제19교구) / 22일(화) 12:00 갈릴리
2. 정관원군(정일하 성도, 황기생 권사의 아들, 제6교구)과 김은주양(김재용 씨, 박정원 씨의 딸) / 24일(목) 13:00 갈릴리
3. 신홍표군(신광칠 성도의 동생, 제19교구)과 최윤주양(최종태 씨, 김은영 씨의 딸, 제19교구) / 25일(목) 13:00 갈릴리
4. 전성백군(전완상 성도, 박무강 집사의 아들, 제11교구)과 강경량양(강국용 성도, 최영자 성도의 딸) / 26일(토) 13:00 갈릴리
5. 김현표 성도(이순원 집사 남편, 제4교구 미도1구) / 10일 별세, 12일 장례
6. 홍승조 성도(이순원 집사 딸, 제4교구 미도1구) / 10일 별세, 12일 장례
7. 정복금 권사(최희준 집사, 최희준 권사의 딸, 최유미 성도, 조영선 권사 시모, 제17교구 아람구) / 11일 별세, 14일 장례
8. 이삼복 집사(이영재 집사, 이영재 성도, 이혜영 집사 부친, 김순수 성도, 오경화 성도 시모, 장인형 성도 장인, 제17교구 정동2구) / 11일 별세, 14일 장례
9. 정기원 성도(장인주 권사 부친, 전도전 집사 장인, 제6교구 배미리1구) / 12일 별세, 14일 장례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번호  | 성명 | 교구   | 소속부서 | 인도자 |
|------|-----|----|------|--------|------|-----|------|---------|------|-----|----|------|------|-----|
| 1509 | 이정은 | 1  | 청년1부 | 이호일(1) | 1516 | 황금만 | 2    | 바울      | 1524 | 라나순 | 17 | 청년2부 |      |     |
| 1510 | 김찬희 | 1  | 소망부  |        | 1517 | 김성섭 | 4    | 베드로     | 1525 | 민병세 | 3  | 소망부  |      |     |
| 1511 | 조덕형 | 8  | 바울   | 김용웅(8) | 1518 | 송국옥 | 4    | 청년2부    | 1526 | 유병정 | 3  | 소망부  |      |     |
| 1512 | 김양구 | 11 | 청년1부 | 1519   | 김희정  | 5   | 루디아  | 남영순(5)  | 1527 | 정준성 | 9  | 청년1부 |      |     |
| 1513 | 김소진 | 19 | 청년1부 | 1521   | 함수환  | 19  | 청년1부 | 정은경(11) | 1528 | 이여진 | 11 | 미리야  |      |     |
| 1514 | 하윤신 | 19 | 대학부  | 1522   | 윤민주  | 19  | 대학부  | 성정혜(8)  |      |     |    |      |      |     |
| 1515 | 김기문 | 19 | 청년2부 | 1523   | 강민정  | 19  | 대학부  | 최봉환(8)  |      |     |    |      |      |     |

※총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물매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소현(권사, 1교구)

천 국에의 소망을 품고 주변 정리를 계속하는 동안 27년 전에 쓴 1년치 육아일이 한 권을 발견하였다. 하던 일을 멈추고 읽는 가운데 회화와 감사가 교차되었다. 그 당시의 내 믿음의 수준이 형식과 법범주의에 빠져 복음의 비침을 깨닫지 못하고 구가수의 여인처럼 어리석은 건주를 하는 모습이 심히 안타까웠다. 주님의 참 만남을 갖지 못하고 헛된 영혼이었던 것을 찾아 헤맨다는 뼈대있는 회고였다. 하나님의 상급인 보배로운 두 아들을 태내에서 자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총력투입했었다

라면 때는 아쉬움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그러나 아들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몸통이 버려지고 동네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증거한 우물가의 여인처럼 변화되었다. 그리고 주님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비로소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되었다. 아들들에게는 오직 주의 교양과 혼례로만 양육하여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였다. 전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신 여호와께 감사드린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총원 중보의 창

1) 감창인 원로목사와 감창원 위임목사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관능과 육신의 건강함을 주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이번 장로수련회(21일-22일)를 통해서 장로님들이 은혜받고 더욱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2) 총원소속장학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양육을 위해서 더욱 감격히 힘쓰며 천국 일꾼으로 잘 자라나게 하소서.

3) 각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화평으로 찬양하여 성령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4) 모든 성도들과 기원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고, 총원의 기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5) 새가족기도회와 금요교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6)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들고 고생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총원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품이 아픈 성도들을 믿음 중에 건강케 하시어 치료하여 주소서.

7) 각종 재난과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내 슬픔처럼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8) 매 주수 1부예배 후에 있는 지역장, 부지역장총회와 수요일부예배 후 진행되는 남성구역장총회를 통해 교구일꾼들이 힘있게 세워져서 각 구역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소서.

9) 교회 5대 목표가 각 교구와 교회학교로부터 시작하여 전 교회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 하소서.

10) 계속되는 교구영성전환을 통하여 각 교구가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이루게 하소서.

11) 이미 시작된 주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전양대원양성부, 신교원전일 등의 기가이 힘있게 진행되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준비시킬 수 있도록 동행하소서.

9월 27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가브리엘소프라노들 <찬양곡목>
  - 소프라노(소프라노 배수연)
  - 주 안에 있는 나에게(대니 이종운)
  - 내 평생에 가는 길(소프라노 이혜은)
  - 생명의 양식(배시서준성)
- 3부예배 임마누엘소프라노들 <찬양곡목>
  - 저 높은 곳을 향하여(소프라노 김은정)
  - 시편 23편(소프라노 김희숙)
  - 나의 도를 받고자(소프라노 정동숙)
  - 사랑하게 하소서(배시서준성)
- 4부예배 소프라노 이마리엔엘찬양대 <찬양곡목>
  - 내게 음악 주신 분
  - 생명의 양식
  -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 5부예배 찬양 및 기도회 인도 김필수 목사



- 원로목사 감창인
- 위임목사 감창원
- 부목사 이종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이종성 김철환 김재철 이종성 정창진 정현민 조준성 조준성 김동하 박종훈 정혜성
- 협동목사 송영락 박용복 노봉근
- 신서사 이준근 안진철 김영대
- 감도사 이준경 박노현
- 원로전도사 이두만
- 의전사 최희숙 정현길 현정남 정복인 장영라 임태주 김경자 박희준 최희준 손미희 송창자 신동자 윤옥진 오정숙 오순옥 김옥순 한영준 박용복 박희자 김영숙 김복순 최영란
- 교정전도사 박지현
- 신학교전도사 박진익 열현일 한승일 이종관 김영기 박원석 장영준 조재민 최진우 하용구 이두만
- 신학교전도사 정은희 박태양
- 신학교전도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민 하요복